

취침 시간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지나의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제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나는 깊게 잠들었는지 인기척에도 깨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지나에게 다가가 자고 있는 얼굴 가까이 손을 대자 홀로그램으로 무의식에 진입하겠다는 메시지가 떴다. 로딩이 시작되고 제트는 수행해야 할 업무를 되새겼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유일한 목적이었다. 이내 로딩이 완료되고 신호가 끊기며 시야가 어두워졌다.

신호가 돌아오고 제트가 눈을 뜨자 우주의 형태를 한 공간이 보였다. 어두운 공간 속 별들이 빛나고 있고, 제트가 지나에게 보여준 별자리들도 곳곳에 보였다. 지나의 무의식 공간이었다. 멀리 쌍둥이자리가 가장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제트가 별자리에 손을 대자 밝은 빛과 함께 다시 신호가 끊기는 느낌이 들었다.

“언니, 여기에 붙일까? 어때?”

나무로 만들어진 어두운 오두막 속, 지나가 별 모양 스티커로 벽을 채우고 있고, 옆에는 곱슬머리를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지나와 여자는 제트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지나의 꿈속으로 무사히 진입한 듯했다. 꿈속의 지나는 제트가 알고 있던 모습과 조금 달랐다. 무표정도 아니었고 말도 많았다. 여자가 대답하던 말든 혼자 재잘재잘 떠들었고, 여자는 옆에서 지나를 흐뭇하게 바라봤다.

“언니는 우주에 가본 적이 있어?”

“그럼. 고요하지만 끊임없이 돌아가는 세상이야.”

스티커로 벽을 빼곡히 채운 지나는 여자의 옆에 누웠다. 발을 뺀어 커튼을 걷어보지만, 창문 너머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암흑뿐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하얀 방에서 태어나 평생을 자라온 지나가 창밖 풍경을 알 리가 없었다.

“바깥세상이 궁금해…….”

여자는 살짝 웃으며 지나의 눈을 손으로 덮었다.

“자, 상상해 봐.”

“응.”

“우주는... 발밑은 푸르고, 머리 위는 파랗고, 따뜻하고 밝은 빛이 내리쬐어.”

“푸른 거와 파란 거는 다른 거야?”

“푸른색은 생명의 색이고, 파란색은 우주의 색이야.”

“으음... 어렵다.”

“바람은 살살 불어서 머리카락이 기분 좋을 정도로 훑날려.”

“살살…….”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춤을 추고…….”

여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밝은 빛과 함께 새로운 공간이 펼쳐졌다. 잔디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하늘은 파랗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제트는 바람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머리카락이 훑날리는 것을 볼 수는 있었다. 흔들리는 풀들을 바라보며 여자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푸른색은 생명의 색…….’

저 멀리 지나와 여자가 뛰어놀고 있었다. 제트는 천천히 둘에게 다가갔다. 분석하지 않아도 지나의 감정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크게 웃는 표정은 ‘행복’이다. 어깨를 피고 뛰어다니는 행동은 ‘즐거움’이

다. 하얀 방에서 봤던 지나의 모습에 비해 생기 있는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지나를 푸르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푸른 지나. 제트는 속으로 지나에게 별명을 붙여 보았다.

“언니! 데려와 줘서 고마워.”

“행복해?”

“응! 진짜로. 우주라는 곳 정말 예뻐.”

“우주는 우리의 고향이야. 우리는 여기에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난 곳?”

웃고 있는 지나를 여자가 짝 안았다. 멀리서 둘을 바라보는 제트와 여자의 눈이 마주쳤다. 웃고 있던 여자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응. 죽어 있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곳.”

여자의 말과 함께 제트의 신호가 다시 약해졌다. 인간이 정신을 잃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다. 제트는 약해진 신호 속에서 여자의 말을 반복했다. 죽어 있는 것, 죽어 있는 것, 죽어 있는 것. 나는 살아 있는 존재인가. 살아 있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흐려진 시야 속에서 지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행복했던 방금까지와는 다른 목소리,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소리침이었다.

“싫어. 그만하고 싶어. 제발 놔줘...”

제트의 신호가 돌아오고 눈앞에 보인 풍경은 하얀 방이었다. 바닥에는 별 모양 장식들과 전선이 널브러져 있고, 그 중심에서 지나는 기계에 온몸이 묶여 있었다. 제트는 깜짝 놀라 지나에게 묶인 줄을 풀어보려 했으나, 제트의 손은 지나를 통과할 뿐이었다.

“우주 같은 거 바라지 않을게요. 기대하지 않을게요. 잘못했어요.”

지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만약 지나가 희망을 품은 게 죄라면, 인간이 희망을 품을 수 없다면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트는 따스한 햇살 밑에서 빛나는 지나의 눈동자를 다시 보고 싶었다. 푸른 지나야말로 완전한 지나라고 생각했다.

울고 있는 지나에게 여자가 다가왔다. 여자는 지나를 풀어주지 않았다. 정확히는 풀어줄 수 없었다. 여자 또한 줄에 묶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여자는 지나를 꼭 안아줄 뿐이었다.

“지나야. 우리는 순간들을 기억해야 해. 자꾸자꾸 떠올려야 해.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야. 나는 그곳에 계속 살아 있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여자는 사라졌다. 지나는 한참 소리쳐 울다 힘이 빠졌는지 멍하니 눈물만 흘렸다. 지나가 눈물을 흘린다. 제트는 지나가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트의 신호가 요동쳤다. 신호가 흐려지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한꺼번에 다가왔고, 쏟아지는 정보를 제트는 감당할 수 없었다. 감정이구나. 제트는 이 느낌을 감정이라고 판단했다. 제트는 어느 순간부터 지나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다. 푸른 지나를 바라고 있었다. 제트의 신호가 다시 흐려졌다.